

<첨부 2>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 개회사(안)

(인 사 말)

- 안녕하십니까? 전경련 부회장 권태신입니다.
-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김홍중 원장님을 비롯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역경제 전문가 여러분, IMF, Angana Banerji(앙가나 바네르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님,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님,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님을 비롯한 연사,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경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함께 하는 오늘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인 코로나 19 이후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전망을 공유하고, 향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주요국들의 경제상황은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한국 경제 상황)

- 참석자 여러분 !!!
- 전대미문 바이러스에 의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올해 우리 경제는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 석 달전(4.8) 전경련이 -2.3% 성장을 예측했을 때만 해도
비관적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었습시다만
최근 IMF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낮추었습니다.
-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4월, 5월에는 20% 이상
줄었고, 6월에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 전경련의 자체분석 결과, 매출 100대 기업의 1분기
해외매출은 2019년 4분기 대비 10.4% 줄었고 2분기에도
10%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리스크)

- 정부의 재정투입과 우리기업들의 기초체력 덕분에
걱정했던 경제 위기상황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반기 경제상황은 더 녹녹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 어려운 경영여건을 차입금 확대와 자산매각 등으로 견뎌온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가 끝나는 10월부터는 유동성 위기를 맞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남미와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등 2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 전경련이 세계 18개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글로벌 경제는 올 하반기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더블 딥이 예상되고, 2022년 하반기가 되어야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코로나19로 멈춰버린 글로벌 무역과 인력 이동의 정상화도 시급합니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세와 미중 통상전쟁 재연 조짐 등도 우리경제에 커다란 복병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경제는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아 신속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입법 추진,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없이도 이미 올해 1%대 성장이 예견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전환 없이는 현재의 감염위기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마무리)

- 참석자 여러분!
이렇듯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이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지만,
다행히 우리에게서 70년대 오일쇼크, 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한 DNA와 경험이 있습니다.
- 아무리 큰 어려움도 그 어려움이 어떻게 전개되고 언제쯤 종식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대응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 오늘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글로벌 경제상황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보다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 부디 오늘 세미나가 우리기업 글로벌 경영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전경련도 과거 우리경제 위기극복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한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